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이 세상에 '사랑'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말이 또 있을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이유어 할 불분하고 지고지순(至高至純)한 것이다.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사랑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출신 학교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은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사랑은 이렇게 절대적인 선(善)이지만 때로는 빛나갈 때도 있다.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남녀 간의 사랑은 빛나간 사랑이고, 자기 나라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배타적인 국수주의(國粹主義)에 빠진 사랑도 빛나간 나라 사랑이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쟁거투처럼 늑골이 풀고 다니는 엄마나, 자식의 주위를 맴돌면서 자식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지시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맘'의 사랑도 빛나간 자식 사랑이다.

이 빛나간 사랑의 결과는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 빛나간 남녀 간의 사랑은 당사자를 파멸로 이끌고, 배타적인 국수주의는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으며, 헬리콥터 맘의 사랑은 결과적으로 자식을 망치게 된다.

빛나간 사랑

는 "光化門은 역사 속에 있는 죽은 현관이다. (한글) 광화문은 오늘날 살아있는 현관이고 우리의 상징이고 자랑"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1968년부터 걸렸던 한글현관을 떼어낸 것은 역사 파괴다. 한글현관은 민주정치의 상징이다"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던 공청회는 막말까지 오간 끝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결국은 한글 전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의 재연이다.

이대로 대표가 한글 편역을 주장하는 것은 한글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

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과학적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한글은 우리 민족문화의 금자탑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한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복원된 고공의 편역을 한글로 바꾸는 것이 과연 참된 한글 사랑일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글이 얼마나 발전하겠는가?

정말로 한글을 사랑한다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외계어(外界語) 같은 인터넷 언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가세한 맞춤법을 무시한 막말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까 새끼"와 같은 말이 아름다운 한글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가! 또한 부분별한 외래어 남용도 한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보라, 거리의 간판 절반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제쳐놓고 기껏 원래 한자로 쓰여 있던 고공의 편역을 굳이 한글로 바꾸자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한 주장인 듯하다. 역사적인 문화유산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자세가 옳지 않은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고풍하고 방자하게 굴어 주위의 민초를 사는데도 사랑스럽다는 표정으로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부모들의 빛나간 자식 사랑은 결국 자식의 장래를 망친다.

무조건 한글이어야 한다는 맹목적인 한글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글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빛나간 사랑이 아닐까?

(성공관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삼성전자·협력업체 동반성장 나서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 해외 이전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2일 "글로벌 현지화 전략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외 이전 물량 가운데 나갈 것은 거의 다 나갔다"고 밝혔다.

광주공장의 냉장고·세탁기 등 생산물량 15~30%가 해외 현지 공장으로 이전되면서 일부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잇따라 도산한 데다 은행권이 대출을 제한해온 점을 감안하면 해외 이전 종결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생산전략을 살펴보면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삼성이 고가의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제품 생산을 앞두고 협력사와 함께 수직계열화를 통한 대형화와 전문화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170개 사에 달하는 1차 협력업체 가운데 30~40개 사를 2차 협력업체로 돌려 1차 협력업체는 대형화하고, 2차 협력업체는 부품 전문화를 꾀한다는 것이

다. 이는 한정돼 있는 생산물량을 협력업체 간에 분배하려면 자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저가형 부품 생산업체와 경쟁력이 취약한 업체들은 퇴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실업자 양산 등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글로벌시대의 무한 경쟁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대형화·전문화는 이제 대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라도 '홀로서기'가 버거운 협력업체들을 일순간에 내몰아 버리는 것은 '세계의 기업' 삼성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협력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매선 다변화와 해외시장 개척, 내부의 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협력업체들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구조 조정과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광주시 역시 삼성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협력업체의 지원과 관로 확대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살인 이자' 불법 사금융 이제 끝장낼 때다

경찰의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피해 신고가 줄고 있고 있다. 음성적 고리대금인이 활개를 치고, 사채로 인한 서민 피해도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내달 말까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광주경찰과 전남경찰도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달고, 단속에 돌입했지만 살인적인 고리대금에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 18일 이후 이틀간 광주·전남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각각 14건, 18건 등 32건에 이른다. 이는 수사반을 설치하기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불법 대부업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피해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작 수십만~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감

당하지 못해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있다. 주위의 무관심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권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 있다. 제도권 금융이 보증과 담보를 요구하는 등 문턱이 높아 당사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미소금융 등 서민 대출상품을 통해 3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30조 원으로 추경되는 불법 사금융 규모와 10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턱을 낮추고 서민금융 규모를 확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사금융은 움츠러들겠지만 사채시장이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으로 일벌백계하고, 제도권 서민금융 활성화 등 후속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NGO 칼럼

법·제도 강화보다 학교문화 개선부터



양수임

지난해 12월 광주, 대구 등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10대 청소년의 자살과 투신 소식이 참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그러한 당사자의 가족들, 학교, 국가는 이 학교폭력 사건들에 당황해 하며, 학교폭력 대책을 법과 제도로 보완하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라는 7대 실천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대책들이 정말 실효성 있고 학교폭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쏟아내는 대책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시 처벌, 단속 등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며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렇게 강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이 학교폭력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듣는 청소년들은 이런 방식을 학교폭력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처벌 단속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예방법은 계속 강화되어 왔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교사배치, 위르래스, 쉼터, 금란교실, CYS-NET, 학교폭력지원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청 차원에서 민관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참 많은 방식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청소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모순들이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비난하는 폭력적인 가정 환경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저항감으로 폭력성이 나타나고, 학교에서는 다양성을 존중받기보다는 대학 진학만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학벌중심사회에 발 디딜 틈이 없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비리는 끊임없이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무책임함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폭력을 가르치고 있다.

어떤 행동이 좋은 모델링인지 우리 청소년들의 도덕적 기준은 흐트러져 가고만 있다.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성장기에 놓인 미성년자라며 보호라는 이유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르라는 말 뿐, 어른들의 폭력적 모습은 우리 사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문화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의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뿐인 가르침의 어른들 모습, 행동으로 문화로 비치지 않는 지금의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가정 내 폭력환경, 학교 내 감압적인 폭력문화, 부도덕한 사회 속에서 자라면서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학교폭력의 당사자들만 을 달고, 처벌하고, 기록에 남기고 하는 것이 정말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처방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한 처벌과 단속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폭력은 분명하다.

단순히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지금의 우리 사회에 질게 깔려있는 폭력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임을 또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가정, 학교,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광주YMCA 청소년팀 총괄팀장)

기고

봄꽃의 경고



채영선

바람 좋은 백화방초(百花芳草) 봄날에 출근길이 매우 기분이 좋다. 베란다에 선홍빛 철쭉이 물 한잔 부어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서면 아파트 정원에 핀 연분홍 매화와 노란 산수유, 하얀 목련이 잘 다녀오라고 살랑거린다. 차를 타고 광주천변을 달릴 때 흐드러지게 핀 철쭉이 가슴 떨리게 추파를 보내면 그 설렘을 감당할 수 없다. 이윽고 교육원이 들어서면 개나리가 환영인사처럼 촉대 위에서 손을 흔들고 동백이 피를 토하듯 통째로 떨어지고 있으며 살짝 푸른빛을 머금은 산벚꽃, 자목련과 백목련이 좌우에서 길게 늘어서서 미소를 보인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런 행복을 준 꽃들에게 고마워 말을 걸어 보았더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느라 내게는 까일 틈을 주지 않았다. 봄꽃의 대화를 필자만 듣기 아까워 여기에 옮겨본다.

목련이 동백에게 말했습니다. "아, 동백아!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었는가? 잘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반갑다. 그리고 너는 어찌 통째로 떨어져서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니, 너의 기가 있는 모습이 아름답고 부럽다." 동백도 목련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대 반갑다! 그런데 늦게 피어서 조금 속스럽다. 사실 너의 탐스런 모습이야말로 생명의 등불처럼 보여. 너야말로 4월의 여왕이지."

그러자 옆에 있던 연분홍 매화와 붉은 철쭉, 희거나 연분홍 벚꽃, 살짝 푸른 산벚꽃, 노란 개나리와 산수유, 그리고 자목련들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꽃 중에서 가장 일찍 피어야 할 동백이 늦게 피어 미안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날씨가 회한하니 이렇게들 만나느구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얼마만이지? 조선시대에는 몇 번 못 만났는데 최근에는 자주 만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꼭 죄지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우리들이 동시에 만난 게 과연 제대로 된 하늘의 이치일까? 날씨 때문인지 덕분인지 우리가 만났는데 걱정이

돼!"

이어서 가장 늦게 피어야 할 꽃이지만 같이 핀 자목련이 말했습니다. "날씨가 적절적인 이유이지만, 사실은 인간들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어! 나는 보통 백목련도 이렇게 마주 보기 힘들어.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만 행복하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했어. 이제는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자 중국에서 온 산수유가 걱정을 보였습니다. "중국도 지금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 높은 빌딩 휘황찬란한 야경이 마치 발전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해! 정말이지 에너지를 안 쓰는 발전은 없나?"

철쭉도 한마디 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알라바드 나무가 인도 수상으로 있을 때 서방의 어느 지도자가 은근슬쩍 인도의 문명들을 비웃자 그가 말하길 '만약 인도 사람들이 전부 책을 읽기 시작하면 히말라야 산의 나무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자연과 함께하는 인류의 발전에

대한 고민의 시초가 아닐까 해. 개나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개나리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날씨가 따뜻하면 늦게들이 11월이나 12월 초에도 피어서 사람들이 '날씨가 망령이 났나?'라는 말을 하게 했어. 사실 나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보며 조심할 줄 알았어. 이제는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산벚꽃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니 할 말 없어.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불안하기는 해."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옛날부터 선비와 가장 친한 매화에게 사람들이 왜 그런지 묻자 매화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얼 알겠어. 옛 선비들은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항상 인간의 과욕을 경계했어.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니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소중히 하라고 하면서 절약을 무척 중시했어. 그런데도 그 무서운 핵발전소를 짓는 것을 보면 나는 이해가 안가. 에너지를 절약해서 조금 쓰면 될 텐데 왜 그리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면서 위험을 무릅쓰는지."

모든 꽃들이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은 북한이 로켓을 쏜 것은 걱정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걱정이 되는구만! 우리가 자주 모이면 북한의 로켓은 아무것도 아니여! 제발 정신 차려!" (광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닭고기도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해야

우리 가족이나 이웃, 주변에서 먹는 닭고기의 양이 많다. 아이들은 난반 뜨면 치킨 닭고기로, 술안주, 삼계탕, 닭볶음탕으로도 먹고, 백숙에 닭짬까지 가정과 술집 등에서 내가 먹는 닭고기양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나와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그 많은 닭고기를 먹으면서 식당 주인이나 닭고기 판매업자로부터 그게 수입산 닭고기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뉴스

를 들어보면 양보 6~7개월 동안 수입되는 닭고기의 양이 5만톤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닭고기는 과연 어디로 가서 누구 입으로 들어갔을까. 그나마 대형마트들은 생닭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음식 코너에서 파는 바비큐나 튀김류에는 그게 수입산으로 만든 닭고기인지 전혀 표시가 안 돼있다. 수입산 닭고기의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지

켜지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은 전혀 모른 채 전부 다 국내산 닭고기라고만 알고 사먹고 있는 것이다. 배달용 치킨에 대해서도 포장지나 스티커, 전단지에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기는 했다.

하지만 요즘도 배달되는 치킨에 원산지를 표시한 업소들이 몇 군데 없다. 어디서 온 닭고기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국내산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이미 튀겨져 배달 온 닭고기를 놓고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싸울 수도 없고, 반쯤할 수도 없으니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먹는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는 뉴스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다 보니 닭고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실시나 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국민이 지금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지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에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내산 닭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 수입산 닭고기가 어떤 유통경로로 우리에게 오는지 제대로 알리지 국민이 올바르게 알고 사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정현창·광주시 광산구 왕동

**無等鼓**

'조국근대화'의 기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박정희 정부는 초창기 경제개발로 민심을 얻는 데 일단 성공한다. 불마다 보릿고개에 시달려야 했던 서민들은 박정희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얻고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

1970년대 들어 한국은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그러나 1차산업 위주로 워낙 기반이 취약했던 한국경제는 단순한 수출산업의 한계를 넘지 못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정부의 수출 일변도 정책에 따라 대외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인 기업들은 부실에 빠졌다.

1969년 1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한국은 1970년 7.6%, 1972년 5.7%로 급전직하 했다. 이에 전경련은 박정희에게 기업들의 사채동결을 요청을 하게 이른다.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한 박정희는 총격법을 도입한다. 이른바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다.

기업의 사채는 3년간 갚지 않고 이후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며, 정부가 단기 대출금 중 30%를 대환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이 조치로 기업들은 큰 혜택을 받았으나, 수출 실적은 급세 회복되었다. 반면, 돈을 빌려준 소규모 사채업자와 일부 시민은 큰 타격을 입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3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자살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40년이 흐른 지금도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고객은 하루살이가 고달픈 서민들이다. 사채 가운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고리채다. 급전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불법사채업자의 횡포는 공포 수준이다.

정부가 수시로 불법사채 행위 단속을 벌인다면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차라리 '불법사채 동결령'이라도 내려야 할 판이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성매부 2200-621	경정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문화홍보국 2200-541
정경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267)	전 사 부 2200-685	다 사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립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